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5, 2024 Vol. 897

인생을 리셋하시는 하나님, 새해, 다른 내가 되는 것

지난 12월 31일 자정과, 1월 1일 새벽, 남가주 교회들은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발길로 분주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은혜한인교회 〈허무한 인생이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은혜한인교회는 오후 10시 〈허무한 인생이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으로〉(시편 90편)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한기홍 목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 세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서 초라해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나님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육신의 한계, 작은 생각 가운데 묶여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 모세는 인간이 이렇게 늙고 연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알았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살 길이 열렸다.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허무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길이 열린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짧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히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해도 얼마 시간이 없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구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순종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긍휼을 구했다. 다섯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나성순복음교회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눅 4:18-19)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2024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년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가정과 국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한 원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하셨다. 종 되었던 사람들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해방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였고 희년은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었다."

"희년을 맞이하면 병자도 일어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소망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다렸다.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 보았다.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 마약과 알코올에 망가진 사람, 질병의 고통에 빠진 사람, 탐욕에 몸부림치며 가정이 망가진 사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운 해방과 자유가 임한다는 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방과 자유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이다.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이민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선포하는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질병, 사망보다 크다. 2024년은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베델교회 〈주의 뜻이면〉

베델교회는 〈주의 뜻이면〉(약 4:13~1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죄이다. 여러분의 계획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우리에게는 교만함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로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셨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낫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새해가 밝아올 것이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1월 1일 남가주 교회들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았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세 가지 메시지〉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묵상하며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봉헌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용장, 전쟁에 뛰어난 역전의 용사, 사령관이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이 삶을 마감할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길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기길 원하는가?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에 헌신한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겨 주었다."

"첫째,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생을 마감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2024년, 신앙생활에 갈림길이 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교만은 천사를 악마로 바꾸는 죄이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고 적은 사람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고,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 나의 뜻,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만을 섬기라 (수 24:15) . 디트리히 본회퍼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 1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2024년 대박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강일 : 1월 22일 월요일
2024학년도 봄학기 신 · 편입생 모집

신설학과
- 학사 : 중국어 신학
- 석사과정 : 영어목회학, 중국어 선교학
- 박사과정 : 목회학, 상담심리학

학위과정
- 학사과정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중국어 신학
- 석사과정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 박사과정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I-20 발행

본교특징
- 전세계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 Canvas를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장학금

본교인가기관 BPPE ats ABHE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na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Ext : 30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직원 일동 드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하나님 비전과 묵시적 영성으로 수놓는 2024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동터옵니다.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독일보 독자들과 온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산의 정상까지 3시간, 하산하는데 2시간, 산 정상에서 머문 시간 30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산 정상에서 머문 30분. 나머지 시간은 행복을 향한 우리의 시간 여정입니다. 인생 정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잠시 머무는 시간보다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산기슭에 있든 정상에 있든 참사람만이 시간의 보폭을 따라 복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흐릅니다. 바람은 어디론가 불고 강물은 흐르고 바다는 출렁입니다. 차고 이지러지는 달도, 지고 뜨는 태양도 살아 있음에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삶의 흔적을 역사로 남깁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삶의 흔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살아있는 참사람만이 과거를 반추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써내려 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물리적 시간과 상대적인 정서적 시간 사이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성장 과정 속 시간의 상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은 기어갔다. 청년으로 꿈꾸고 있을 때 시간은 걸어갔다. 장년으로 성장할 때 시간은 달음질쳐 갔다. 늙어서는 시간이 날아갔다. 내가 먼 나라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영원히 가버렸다. 내가 시간을 버렸더니 이제는 시간이 나를 버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부단히 반추해야 하고 희망찬 미래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으로 전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묵시는 비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묵시를 잃은 이는 현실에 안주할 뿐, 위를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길로 행합니다. 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묵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거짓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 모두가 묵시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비전은 개인적인 포부와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 빛납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험난한 파도 속에서 탄생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공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영성의 무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욱 치열한 전쟁은 외부로 드러난 전쟁이 아니라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내밀한 전쟁입니다. 유혹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안일하게 살려는 자세와 매서운 겨울 폭풍과도 같은 신앙의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은 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그 믿음이 도전받을 때, 우리가 묵시적 영성에 눈 뜨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참된 주인임을 일깨우는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묵시적 영성으로 수놓은 신앙은 우리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나 혹독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부릅뜬 영안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보기 위해서 필히 간직해야 할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엡 2:10, 새번역). 2024년이 끝날 때쯤, 돌아보아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산 한해였다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 기회를 더 가지면서 새해를 시작합시다



미주 성시화 운동 공동
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

국제적인 격동의 영향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의 2024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열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사업체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에는 지구촌 40여 개의 나라에서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발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현장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정치 평론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무릎 꿇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라는 메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월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는 파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세력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분쟁의 현장으로 변할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 선거가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양상이 휴전으로 연결 될지 종전으로 끝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2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으로 지쳐 있는 양쪽 국민들의 원성도 극에 달하고 있어 그 선거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에는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진영이 극한 대립으로 나라가 나누어진 것 같은 혼란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선거입니다. 나라의 진로가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일본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되는 선거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 선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진로가 달려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투표해서 주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로 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밧줄을 굳건하게 붙잡고 힘차게 새해 발걸음을 옮겨 나가 연말에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가 땅에 묻혀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큰나무교회 김귀보 목사

새로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묵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해를 지난 낙엽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순이 돋아납니다. 과거가 땅에 묻혀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슴 설레어 기쁘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통쾌함에 웃기고 하고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24년이 2023년이라는 과거를 몰아내고 새로운 태양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감정의 찌꺼기를 땅에 묻어서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땅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썩어서 나무가 자라는 자양분을 공급하듯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기억의 땅 속에 묻어 새해를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게하세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과거가 땅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해야 과거가 땅속으로 묻힙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 끌려간 요셉은 해가 바뀌었다고 과거를 땅에 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과거를 땅에 묻고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 45:8)

우리는 모두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민을 온 사연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모든 사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비로소 과거를 망각의 땅 속에 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밝아 온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민자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원망을 다 묻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새해가 어떤 해보다 더 활기차고 소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영적 공동체 만들어 가길”

영생교회가 김재연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23일(토) 오후 3시에 드렸다.

김재연 목사는 세계비전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 한국의 칼빈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설교를 한 지용수 목사(창원 양곡교회 원로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수 있을까”라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된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 목사는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인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생장로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종기 목사는 “김재연 목사님을 생각할 때 70세를 넘으셔서 목회를 계속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의 현장에 부르신 것은, 지역 사회에 풍성한 사랑과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통해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축사했다.


영생교회가 김재연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23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기독일보

이어서 엄규서 목사는 “주의 일을 함께 섬기면 못마땅한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흉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면서 “좋은 것만을 볼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전모세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는데, 김재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김 목사님은 복음의 열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시기를 축원한다”고 축사했다.

김재연 목사는 “오늘 격려해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영생교회를 지키고 헌신하신 귀한 장로님들이 계신다”라면서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에 헌신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게 여러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감사예배에서는 사회에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 목사), 기도에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성경봉독에 김성구 목사(하나교회 담임), 축주에 나민주 목사(복음주의 장로회 증경총회장), 축도에 정시우 목사(미국장로교(PCUSA) 증경총회장) 등이 순서를 맡았다. 토마스 맹 기자

OC 교회협의회, 박재만 신임회장 인준


사우스베이목사회 기도회가 12월 6일(수) 서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제32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기총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21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예배는 OC 교협부회장 박재만 목사의 사회 아래, 기도 OC 교협이사 민경엽 목사, 성경봉독 OC전도연합회회장 신용집사, 설교 OC교협이사장 신원규 목사, 축사 OC교협증경회장 한기홍 목사, 축도 OC 교협이사 윤성원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33대 회장단이 인준됐다. 회장단에는 회장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 부회장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이창남 목사(주님의손길교회), 이준영 목사(원더풀커뮤니티교회),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 신용 집사(OC 평신도전도연합회 회장), 총무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서기 정우영 목사(말씀대로교회), 회계 이소연 사모(남가주사랑의교회), 감사 김영찬 목사(효사랑교회)이다.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민경엽 목사, 총무 이사 심상은 목사, 이사 박한석 목사, 양금호 목사, 양문국 목사, 윤성원 목사, 정영수 목사, 이봉하 목사,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 박용덕 목사, 엄영민 목사, 김기동 목사, 민승기 목사, 이호우 목사, 이서 목사이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활동으로 교협 신년 시무 예배, 전도연합회 신년하례식 및 선교사 자녀 후원금 전달식, 제9차 OC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튀르키에와 시리아를 위한 지진 성금 모금 독려 기자회견, 김양재 목사 초청 큐티세미나 및 말씀집회, 부활절 연합 예배, 3050 21일 특별영적각성 새벽 기도회, 제2차 2050 목회자 세미나, 3060 사모 블레싱 나이트, 다민족 연합 기도회 등이 보고됐다.

김민선 기자

밸리 교역자협의회 신임 회장 전지승 목사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 2023년 총회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회장 변은광 목사)는 지난 12일 밸리생명의교회(담임 변은광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을 섬길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은 전지승 목사, 부회장은 최주철 목사가 각각 섬기게 된다.

전지승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서오석 회계가 기도하고 변은광 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이어 광고 최주철 총무, 신바나바 직전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에서는 총무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가 있었고 증경회장단 천거로 모든 모임이 마무리 됐다.

김민선 기자

제 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4/29~5/4(월~토)까지 진행된다.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와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가 강사로 나서 제자훈련 목회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와 가치,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철학, 목회현장에의 적용과 원리, 단계적 전략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교회 담임목회자이며, 미주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dmi.sarang.com)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사전 할인(조기 등록 3/12까지, $420) 및 등록 마감 문의 사항은 미주국제제자훈련원 714-635-3000 또는 이메일 dmmi@sarang.com 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빅토빌의 농장 비닐하우스 분양'과 노숙자들의 변화

LA 다운타운 및 한인타운에서 200여명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홈리스 사역단체 아버지 밥상교회(무디 고 목사)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 지난 2월 빅토빌에 대규모 센터를 마련하고 사역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 노숙자들이 변화를 받아 직접 홈리스 선교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신학을 배우고 복음 전파에 직접 나서는 열매를 낳게 되었다. 또한 빅토빌의 10에이커 대지에 6개의 방을 갖춘 집과 예배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기도회 등 소규모 모임을 원하는 교회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4개 동의 비닐하우스를 오픈해서 채소 재배의 참여를 원하는 교회들을 환영한다고 무디 고 목사는 밝혔다. 본지는 최근 사역 근황과 비닐하우스 무료 분양과 관련해 무디 고 목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아버지밥상교회 형제들. 맨 오른쪽 무디 고 목사. ⓒ기독일보

-시에서 홈리스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홈리스들을 변화시키기에 어떻게 해야 하고 현재 하는 사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두드러진 결과나 열매를 소개해주세요.

홈리스 영혼들의 90% 이상이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노력과 의사의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독은 영적인 문제이므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 해결 방책은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홈리스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과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홈리스 형제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홈리스 생활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체험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기도생활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겨나갈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날마다 300명 정도의 홈리스를 먹이고 있고, 50명 정도의 형제들이 변화되어 또 다른 홈리스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도넛을 나눠주고,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된 형제들이 직장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도와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금 홈리스에서 변화를 받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5명 정도 있고, 그중 1명은 올해 전도사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홈리스들은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시 정부에서 하려고 하나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사역입니다.

-홈리스 사역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사역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 그들의 영혼육을 돌봐야 하고 365일 돌보며 함께 해야 합니다.길가에 나가서 음식, 옷, 이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가족이 되어야 홈리스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영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매일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를 통해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홈리스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빅토빌에서의 사역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홈리스의 보금자리로 빅토빌에 10에이커 농장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4동의 아주 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엘에이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닐하우스 사이즈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두 교회가 한 동을 나누어 쓸 수 있고, 큰 교회는 한 동을 교회의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도록 무료로 드리기 원합니다.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사계절 농사가 가능하고 물과 비료는 자동 장치를 통해 공급됩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들이 있어서 돌봐줍니다. 원하시는 채소나 과일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은혜를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주신 교회에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이 기도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교회들이 기도원 공간이 필요하고 농장 지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과 농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홈리스 사역의 특성상 협력과 도네이션을 받아야 유지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많이 받아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합니다. 깻잎, 고추, 수박, 참외, 딸기, 배추, 쪽파, 도라지, 더덕, 대파 등 모든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 14개의 비닐하우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홈리스 영혼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옷, 이불, 신발, 양말, 텐트, 의약품 등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홈리스 사역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13-364-7289(무디 고 목사)

토마스 맹 기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탈북민 초청 성탄의 밤


한미연합회가 20일 윌셔 아로마센터에서 '탈북민 가정 초청 2023 성탄 축하의 밤'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한미연합회(America-Korea United Society, AKUS)가 20일 윌셔 아로마센터에서 '탈북민 가정 초청 2023 성탄 축하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오직 예수'(마태복음 1:21)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기형 목사(CBS 기독교방송 대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물음이다. 탈북을 해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열어가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 '사랑의 나눔' 시간에 인사말을 전한 김영구 목사(AKUS 한미연합회 LA 회장)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랑의 나눔' 행사에서 18 가정에게 지원금이 전달됐다. 행사는 '탈북민 가정들의 성탄 축하의 밤'의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AKUS는 한미 양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번영 및 평화 확보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아틀란타 등 미 전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Center IPA
MEDICAL GROUP

800-427-0336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넘치게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시작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 ⓒ기독일보

➔지난호(896호) 기사 '목회의 턱을 넘기 힘든 분들 돕고파' 에 이어서

"'목회자들이 동력을 상실했다. 목회자로 내가 할 일이 뭐지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회 정의 ,사회 봉사, 부수적인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가장 정직한 메시지를 전할 곳이 교회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설교를 에세이 같이 만들어 놔서 설득력을 잃었다."

옆 마을 교회에까지 솥단지를 싸들고 가서 교회 앞 마당에서 밥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기도한 한국교회 부흥기를 언급하며, 김 목사는, 하루 4번씩, 일주일에 18번에 걸쳐 말씀하고 찬송하니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4번씩 총 18번을 설교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다. 18번을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니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다.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교인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편한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 리더가 끌고가야 하는데 리더가 사람에 맞추다 보니 그것은 점점 사라져 간다."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무엇보다 들려주고 싶은 말은...

시작하는 교회들을 방문해 그들을 위해 집회를 인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들은, 그는 무엇보다도 이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목사에게 달려 있다. 우선 목사님이, 권위의 인물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성령에 두어야 한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본다."

"기본적으로 100명을 넘지 못하는 큰 이유는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다가 엉뚱한 이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속마음을 얘기하는 대신 목사님 흠을 잡거나, 설교를 비판한다. 제일 공격의 대상은 사모이다. 핵심은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 머물고 싶은 본능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 보고 있으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보는 시선을 본다.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살아 있는 메시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성도들에게 줘야 한다. 아무리 목사님이 성격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쓸 데 없는 얘기이다. 그렇게 두 번 세 번만 교회가 깨지고 나면 , '나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맡기신 것 같다'. '성장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 같다'라고 착각한다. 사실 그 교회가 건강한가? 일단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제가 볼 때 이 문턱을 넘는 핵심은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

천 개의 설교에서 관점을 찾으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에 자만심을 갖고 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려 하는 사람이다. 좋은 예화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분은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읽었나를 찾는 것이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보자.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뿌려 주셨다. 그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싹이나고 커야 한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씨가 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들으면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 성도와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저 사람의 신앙의 어려움과 극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믿음이 내 안에 흡수가 된다.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열두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자, 여인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다. 12년 동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 그 레슨이 삽입되어 있는데, 열두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유 받는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믿음의 씨가 자란 것이다.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이다. 예수님이 손 잡고 가는 단계이다.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열매 맺는 단계이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다. 야이로 회당장에 생겨난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일까? 이런 게 천 개만 모아지면 그 목사님이 성장한다. 노트에 천 개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같은 말씀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요나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나를 포기하실 수 있었다. 선지자가 요나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 안 하신다. 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구글 맵으로 니느웨, 지금의 모술(Mosul)을 찾아 보았다. IS가 기승 부리던 곳,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다가 잡혔던 곳이다. 거기 요나의 회당과 요나의 무덤이 나온다. 요나 때로부터 2천년이 지난 후 그곳에 나비 유누스(Nabi Yunus, 요나의 무덤)가 지어졌다. 지도에 들어가보니, 거기 살던 사람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세 종교 사람들이 이 곳을 참배했다고 한다. 니느웨 대신들이, 불평하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모습에 요나의 마음이 녹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죽었다면, 평생을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기념해서 모스크를 지었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그것만 천 가지를 만들라.

김영길 목사는 이미 몇 몇 후배 목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지만,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기 틀이 깨져야 한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해체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이 어렵다. 목회보다 어려운 게 없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다. 장인어른께서 충남에서 큰 석제 공장을 하셨다. 그분이 '돌은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 그것은 깨는 대로 가만히 있고 새기는 대로 가만 있는데 그것을 새기고 깨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셨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야곱 읽기를 통해, 어떻게 우리 안의 골격과 틀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빗나간 방식으로 성경을 오독하게 하는지 언급했다.

"많은 목사님들을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한다. 성경에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나?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는 말이 있나? 없다. 왜 그런 관점이 생겼냐? 우리는 도덕을 중시하는 도덕적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 얍복강에서 회개하고 깨져서 변했다. 얍복강에서 야곱이 변했다는 얘기도 없다. 성경을 선입견을 갖고 읽으면, 메시지의 핵심을 놓친다. 가슴으로 읽는 성경에서 야곱을 엄청나게 변론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고. 이삭 때는 이미 제사의 종교가 시작되었던 시점이다. 에서는 이방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 탐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사냥하러 다니고 그날도 허기져서 야곱이 붉은 죽을 쑤고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겼다. 그는 스스로 버렸다. 두번째 가서 에서인 척하고 복을 다 받았다. 천만에 말씀. 야곱은 안하겠다고 펄펄 뛰었다. 내가 복은 그만두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거부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를 들여 보낸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여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장가가고 싶다고 하니 그 기회를 단번에 잡는다. 리브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하나님 축복은 한번 주고나면 무를 수 없다. 에서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 줄기를 끌고 가시는 분이다. 가인, 아벨, 셋의 흐름이 다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흐름이 다르다. 리브가가 볼 때, 에서는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자가 아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면 이 말은 사기꾼이 할 말이 아니다

20년 만에, 14년 아무 것도 못 받고 일하고 어린 자식과 같이 나올 때에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 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삼촌이 왔을 때 야곱이 기가막힌 이야기를 한다. 자기 외삼촌, 내가 무슨 잘못 했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 떼 중에서 숫양 새끼를 먹어 본 적이 없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밤 잠을 못 자고 고생한 이야기를 신세한탄처럼 한다. 보세요.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게 쉽지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 쉽지 않다. 남 속여 먹기 좋아하는 사람 끝까지 속여 먹는다. 남에게 가슴에 멍드는 것 하는 좋아하는 사람 끝까지 안바뀐다. 야곱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면 이 말은 사기꾼이 할 말이 아니다.

얍복강에서 성경 어디를 잃어봐도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를 고민했다. 그게 야곱이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우리 방식으로 읽고 있다. 도덕적인 얘기만 꺼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 되는가? 성경을 가슴으로 읽어보자. 바른 관점을 가지면 복음적인 메시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게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매력이 사라지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세상이 더 좋아보일 뿐이다.

주디 한 기자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 2등 아이패드 |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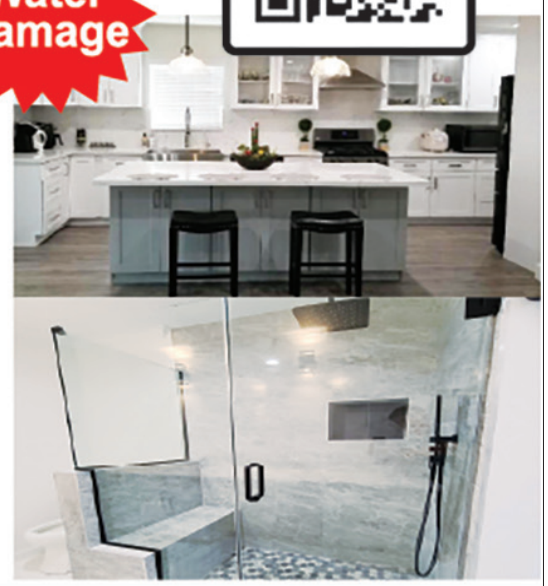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美 한인 중 · 고등학생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미국 중·고등학생 40명 대상
선교 유적지 탐방, 선교 특강
전통문화 체험, 판문점 방문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벨국제아카데미의 학생들 ⓒ기독일보

2024년 6월, 미주 한인 중·고등학생들의 성경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름캠프가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 벨국제아카데미(교장 이홍남 목사)와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본지가 협찬하는 이번 캠프는 6월 17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한국 대전에 소재한 벨국제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미국 내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0명(선등록순)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 및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삼는다.

참가 청소년들은 양화진을 비롯해 한국 내 여러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여러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선교 특강을 통해 한국과 세계 선교의 역사와 흐름을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시티투어 등을 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판문점을 방문해 한민족 분단의 아픔을 눈으로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 됐다.

참가자들은 특별히 한국의 명문 기독 사학인 벨 국제아카데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다도체험·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 농촌체험 등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게 된다.

캠프를 준비하는 박상원 목사는 "한인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선교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얻게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했다.

박 목사는 이어 "우리의 차세대가 '복음 통일'이라는 한민족이 당면한 과제와 중요성을 깨닫고, 통일의 의미와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여름캠프가 진행되는 벨국제아카데미는 2006년 개교했다. 성경적 교육을 기반으로 특화된 교육을 펼쳐 기독교 명문 대안학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벨(BELL)은 Biblical Education for Life & Lidership의 약자로 창조적 지성과 전면적 인성, 융합적 사고와 인간관계 능력 향상을 통해 열방을 품는 국제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벨국제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단편적 지식 전달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성경적 교육을 통해 한국과 전 세계를 이끌어갈 기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비전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기독인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벨국제아카데미의 특화된 교과 커리큘럼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기본 교과 과정 외에도 성경수업, 연극수업, 예배, 기도회, 아침 Q.T, 다양한 그룹 활동 및 스포츠 교육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실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 있다.

이홍남 교장은 "벨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고, 저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영성과 바른 인성을 갖게 된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창조적 지성, 전면적 인성, 융합적 사고, 인간관계 능력을 갖춘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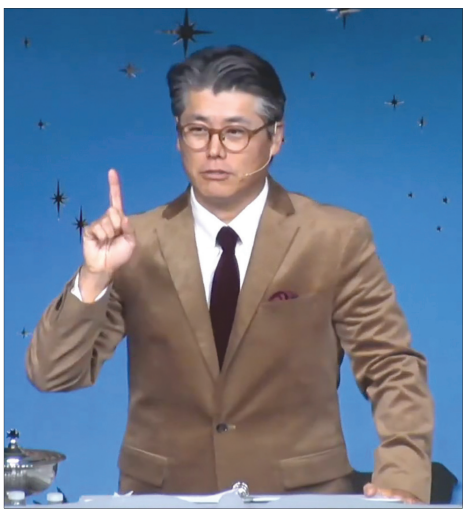
이홍남 교장은 "이번 여름 캠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번 중· 고등학생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의 등록비는 1,700달러이며, 숙식을 비롯한 체재비와 문화 탐방 비용이 포함된다.

전화 : 425)275-8072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www.gideonbrothers.org
벨 국제아카데미 www.bellschool.or.kr

김민선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명찬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유튜브

2월 24일(주일)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목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설교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을 접견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담대하게 물었다. 첫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한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헤롯의 권세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어느 사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동방박사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한 믿음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오 목사는 비록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믿음은 겨자씨 처럼 작을지라도 분명한 실체가 있다. 겨자씨는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붙들고 확신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작은 것을 알지만 딱 잡고 놓지 않는다.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이어서, 두번째 준비 과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마 2:9-10) 다시 오는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 보다 이렇게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며, 이 예배를 통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잘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요일에 예배를 잘 준비하길 바란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물을 다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 주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

그는 동방박사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지를 통해, "왜 우리가 예배 때 기뻐하지 않는가?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다"라고 했다.

오 목사는, 동방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다며,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연약함에 영향 받지 말고 예배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준비한 세가지 예물-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모습에 비추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동방박사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경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부자를 거지로, 거지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푼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받길 원하신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억하신다. 지난 달 특별 새벽예배 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 그 중 셋째날 손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귀중품이 있겠는가. 여인에게 하나 남은 귀중한 물건이 청동 거울이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청동이 필요했다. 이것을 드리면 언제 청동거울을 다시 가질 수 있는지 보장이 없었다. 그것을 기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설교를 듣고 성도님이 깊은 감동이 있으셨던 거 같다. 본인 손에 끼고 있던 두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서 2만 달러에 가까운 큰 돈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헌금으로 올려 드렸다"고 말했다.

"세번째 준비 과정은 사람의 말은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후 동방박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진 사실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순종하다 조용히 십자가 뒤로 사라지면 된다"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The 21th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1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A

제 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 21회 선포 축하식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Saenuri Church Main Hall (새누리교회 본당)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GALA EVENTS OF THE DAY

Part 1

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117주년 평양대부흥회)감사예배!

Main Speaker: Pastor Lee Kangpyeong

Part 2

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및 주요 지도자 조인식

정치인 및 귀빈이 함께하는 한국 민속팀/2세가수/다민족 축하공연

Part 3

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셀레브레이션 디너

121st Anniversary Korean-American Day

Hotel Celebration Dinner RSVP & will receive a confirmation via message.

입장시 무료추첨권을 배부하며
푸짐한 상품 및 각종 한국, 국제공연이 있습니다

무료 경품 품목
-진생 금옥단 1set $1,200 상당
-Women Party Dresses 5벌
-신선정육점 고기셋트 Gift Card 5장
-고급 여성 패션 가방 10개
-전기그릴(대형)

*만찬 호텔예약-총괄위원(마리아 리: Maria Lee-Kakao id: 6311852) • 310-486-3014 Marialeeck@gmail.com
*General Manager: Pastor Young gu Kim • 310-404-6219
KAFLA-Vice President - Jeong-Sook Jeong: • 626-833-2564
Vice President Lim Kyung-Hae: • 909-821-2477
*Tesk force Chiar-Brazil: Gabriel Avelar • 818-747-1380 gabriel@panoramachamber.com
Byungman Lee- President • 678-538-7777 jbmlee2000@yahoo.com

주최 대회장: 김일권 박사, 공동대회장: 미미송 박사, 주강사: 이강평 총장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미주한인재단LA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0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Youth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
수요예배
새벽예배 (토)
오후 2:00
오후 7:30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中, '파라오' 정책 시행… 미성년자 종교 통제 강화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미국 오픈도어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중국 당국은 다음세대들을 이념적으로 세뇌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종교 제한을 가장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이후 '중국화'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는 중국의 종교들이 반드시 중국적 특성을 갖고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중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운 한 목사는 최근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구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일명 '파라오'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중국은 미성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려는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반적으로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엔 다음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독교인을 세뇌하는 것이 더 쉽다. 이들의 목표는 다음세대 기독교인 수를 줄여 미래의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아이들의 종교 예배 참석과 종교 활동 참여가 금지됐다. 시진핑 집권 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에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현재 시 주석 치하에서는 유치원생 및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종교를 믿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정부 직원은 어떤 아이들도 예배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둘 수 없다는 부모들의 항의는 들리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교인들의 가정에서 비밀리에 주일학교를 연다.

홈스쿨링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독교 가정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세뇌를 피하기 위해 함께 모여 홈스쿨을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일반적으로 10명에서 50명 사이다. 일부는 100명 정도까지 참석한다. 그러나 지방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항저우, 칭다오, 구이양과 같은 도시에서는 많은 홈스쿨이 문을 닫았다. 원저우에서는 5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고 최대 20일 동안 구금됐다. 해당 교장은 1년 이상 비밀 구금의 한 형태인 '지정장소 주거 감시' 조치를 당했다.

당국은 홈스쿨링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98,000달러(약 1억 2,600만 원)에서 838,500달러(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많은 기독교인 학부모는 자녀를 해외로 보내 교육을 시키거나 비밀리에 홈스쿨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대학 내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흔했으나, 2014년부터 많은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학생은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팻말을 내걸어야 했고, 이에 따라 교내 활동도 중단됐다. 미등록 교회와 관련된 신학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청두와 쉬저우 시 경찰은 수 차례 신학교를 급습해 지도자들을 연행했다. CP는 "홍콩은 이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의 안식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 인도 등 기독교 박해, 2024년에도 증가 전망"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의 박해 동향 보고서는 "2024년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박해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플래토주(Plateau State)에서는 지난 12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일련의 공격이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는 등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사망자 중에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나이지리아 파트너는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며, 예배 중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공격한 사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4년 나이지리아의 박해는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성전주의자들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식량의 공급을 파괴하고 강제 개종을 요구해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Paul Robinson) 대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반개종법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약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마니푸르주는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

인도에서는 2024년 4월에서 5월 사이 총선을 치를 전망이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집권당인 BJP가 다시 승리할 경우 박해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가 매달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경우는 새해에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교회를 공산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추는 종교 '중국화'라는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중국 파트너는 "중국의 목표는 중국 내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빈슨 대표는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반기독교 박해가 증가하고, 적개심이 폭력으로 변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예수 영접 후 주술과 동성애 떠난 美 여성



간증을 전하고 있는 린제이 스미스.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주술 및 동성애를 떠난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19일 구독자 수 5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간증 채널 '들라페 테스티머니스'(Delafé Testimonies)에 출연했던 린제이 스미스(Lindsay Smith·24)가 최근 CP와 인터뷰를 가졌다.

스미스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영역에서 사물을 보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 입양됐으나, 가족들과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주 악마를 봤고, 가족들은 그러한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녀는 종종 오해받고 버림받은 느낌이었다고.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며 "마귀의 계획은 당신을 아이일 때 사로잡아 성인 때에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귀신으로 알고 생각했던 영들을 보기 시작했다. 내게 귀신을 볼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마귀들이었다. 그런 것들과 셀 수 없이 많이 부딪혔다.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봤다. 처음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봤을 때, 마치 검은색과 회색의 먼지 구름이 할머니 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또 한번은 잠들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를 쳐다보는 눈을 보고 '저게 뭐야?'라고 생각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이 꾸짖어야 할 마귀이고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단지 떠돌고 있는 착하고 좋은 이들의 영이 아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나를 노리는 마귀의 영들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무서운 마귀를 봤으나, 그녀의 부모는 모든 것이 그녀의 상상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 오컬트를 배웠다. 그는 그녀에게 점성술, 고대 이집트, 뉴에이지, 주술 같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그러나 그 관계는 매우 학대적·자기애적이었고 마인트 컨트롤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9개월에 걸쳐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2017년에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남성으로 성전환한 여성과 동성 관계를 맺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LGBT의 자유 분방한 사고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며 주술도 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뿌리는 우울증이었다.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뿌리는 세대 간의 저주, 트라우마, 두려움 등 모든 다른 것들이었다. 나의 평화는 위조된 평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고 했다.

몇 년 동안 답을 찾은 끝에 스미스는 뉴에이지와 주술에 빠졌다가 이후 그리스도께 돌아선 전직 마녀들의 간증 영상을 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그녀의 삶의 궤적을 바꿨다.

그녀는 2021년 5월 23일 마침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 후에도 삶 속에서 여전히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그녀는 "동성애를 멀리하고 신비주의를 멀리하는 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지상 세계에서 악마와 악마의 영적 영역을 볼 수 없다. 난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면이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남침례회 측, 국방수권법안 예산 '원정 낙태 및 성전환' 포함 규탄

미국 남침례회(SBC)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낙태 관련 여행 및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제한을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방 예산을 8,837억 달러(약 1,141조 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중 8,414억 달러는 미 국방부에, 324억 달러는 에너지부(DOE) 산하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 그리고 4억 3,800만 달러는 기타 국방 관련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반면 국방수권법안에서 낙태 관련 여행 제한, 성전환 수술 자금 조달 제한, 2021년 미국으로 도피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등 ERLC가 강조한 주요 우선순위들은 모두 제외됐다. ERLC의 정책 관리자인 한나 다니엘은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세금 지출로 이뤄지는 낙태 여행과 '성전환' 수술 및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NDAA가 진행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동맹국들에게 영구적인 지위를 얻는 중요한 길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ERLC는 2024년에도 이러한 취약한 인구들이 각자 보호받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국방부의 낙태 여행 정책 제한이 포함됐던 이전 법안은 지난 여름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통과 당시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달 최종 합의된 타협안에서도 제외됐다. 국방수권법안은 13일 하원에서 310대 118로, 14일 상원에서 87 대 13으로 통과됐다. 레더우드는 "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은 낙태 문제를 주정부로 돌려보내,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제한하는 생명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주를 횡단하는 낙태 여행은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주들의 결정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을 명시적으로 낙태 촉진에 사용하며, 연방법과 미국 국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에 미국으로 도피한 아프간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레더우드는 서한에서 "당신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 도망가야 한다는 공포는 상상할 수 없다"라며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가 그들을 완전히 포용하지 않음으로써 악몽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은혜와평강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최 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나성북부교회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아가페출)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가디나선교교회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남가주기쁨의교회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 2부예배 오전11:00 /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은혜로교회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45 / EM성인예배 오전 9:30 /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9:45 / EM 예배 오전 9:45 /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 KM청년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 주일2부 오전 9:45 / 주일3부 오전 11:30 /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GRC(EM)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EC) 오전 9:30 / 청년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7:30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님의빛교회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 2부예배 오전 11:00 / 청년예배 EM 오후 1:3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늘푸른선교교회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 2부예배(KM) 주일11:00am /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 교회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 30 /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7:00(수) / 중보기도 오전 9:30(목) / 제자성서 오전 9:30(금) /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베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 2부예배 오전 9:00 / 3부예배 오전 11:30 / 청년예배 오후 2:00 /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 일본어 예배 오후 1:15 /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온누리교회 박신웅 담당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 2부 오전 9:15 /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중고등부 오전 11:15 / 한어부 오후 1:00 /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찬양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 2부예배 오전 09:10 / 3부예배 오후 11:20 / 4부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 토요일 오전 06:00 /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함께걷는교회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New Church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2024
중·고자녀를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부모가 꼭 권하고싶은 기독교육캠프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7월 12일(금)까지
장소 : 한국 충남 논산 소재 벨국제아카데미
대상 : 미주 한인 2세 자녀들($1,700/1인)

캠/프/내/용

1. 크리스천/나의 정체성교육
2. 한국인과문화 정체성교육
3.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





상세안내는 기드온동족선교 홈페이지와 큐알코드 검색

■ 등록신청 : www.gideonbrothers.org
■ 벨국제아카데미: http://bellschool.or.kr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BELL INTERNATIONAL ACADEMY

문의 : T.(425)775-7477 gideonbrothers100@gmail.com
협찬 : 미주기독일보

김영길 칼럼

마태복음의 조감도(鳥瞰圖)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모든 저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먼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읽으려면 먼저 마태의 집필 의도를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주옥같은 말씀들을 가슴으로 읽을 수 있다. 마태는 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왕)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칭호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주 등장한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고,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입성(入城)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에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다(27:11).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罪牌)가 걸렸다(27:37).

왕에게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 '제자'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46회, 누가복음에 37회 나오는 반면, 마태복음에는 73회나 나온다. '제자 삼다'라는 동사는 신약성경에 4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세 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태는 자주 '제자'와 '무리'를 구별한다. 대표적인 예가 5장 1절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놀랐다.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일종의 구경꾼들이었다. 훗날 그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신분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마태는 제자들의 훈련과 성숙, 그리고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고 믿음도없는 자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소량의 음식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한 번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4천 명 이상을 먹이셨다. 그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쑥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은 떡이 아니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교훈을 주의하라는 뜻이었다. 그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마가와 마태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막 8:21).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마 16:12).

마가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마태는 제자들이 마침내 깨달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하오이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마가는 제자들의 놀람과 두려움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탄식하셨다(막 4:40).* 그러나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하여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을 삽입한다. 비록 잠시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없는'이 아니고)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손을 붙잡아주셨다(마 8:26).*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경배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마 14:33).

마가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막16:14).

그러나 마태는 비록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大)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처럼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과정,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

김한요 칼럼

행복합니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가 행복추구권입니다. 아마 연말에 제일 많이 들었던 덕담이 "행복하세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행복은 항상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같이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정작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경민 씨의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 행복 행복이라오 /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은 환경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 반응하는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흔들림 없는 깊은 믿음입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하면 비좁은 아파트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땀 흘리며 우유 배달하는 아빠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과 함께하면, 어디에서 살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불편한 환경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결혼해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다시 할 것이며, 우리 자녀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모습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일 년 52주 동안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디 있던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누린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나의 조건에는 기름이 바닥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은혜의 주유소, 베델교회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되어 한 해를 달려올 수 있었다면 2023년은 행복한 한 해였음이 분명합니다.

행복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예배 때 만나는 것은 한평생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최고의 행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베델이 있어서 행복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신년말씀집회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2024년 한 해를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

일시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8시
2024년 1월 14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LA성암교회 (김요한 담임목사)
(255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T.(213)220-6421

성암교회 HOLY ROCK CHURCH

홈쇼핑월드 2024

새해 첫 희망찬 세일!!

세일 기간 : 2024년 01.05(금)-01.09(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WOW 2024년 새해 첫 원가이하 수량제한 세일!!

엔초이스
당뇨에 좋은 뽕잎가루
180g
~~$49.00~~
~~$39.00~~
$14.99



아이뽀요
알로에 베라 물티슈
100매
~~$5.99~~
$1.00



크린스타
옷장 탈취제
~~$3.99~~
$1.00



바른세제 연구소
과탄산소다
~~$14.99~~
$7.99



당뇨인이 먹는 가바쌀
떡볶이, 가래떡, 떡국떡
1팩
~~$6.99~~
$5.99
3팩
$10.00



진주
쌀 과자
~~$4.99~~
$1.00



강원도 자연건조
황태포
1미
~~$19.99~~
$4.99



강원도 자연건조
황태포
3미
~~$29.99~~
$13.99



24K 골드
렉셔리 마스크팩 세트
~~$19.99~~
$4.99



에스폴리오 히알루론산
콜라겐 앰플
250g
~~$49.99~~
$15.00



에스폴리오 펩타이드
콜라겐 앰플
250g
~~$49.99~~
$15.00



광동제약 피부엔톡
저분자콜라겐
~~$49.99~~
$15.00



바다로21
서천 도시락김
16봉
~~$9.99~~
$4.99



완도 특산물 너무 맛있는
광어죽, 전복죽
~~$7.99~~
$3.99



완도 특산물 **전복 해물볶음밥 김치볶음밥**
~~$6.99~~
$3.99



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49.00~~
$10.00
*1인 5병 한정



2024년 새해 첫 인기상품 희망찬 세일!!

100%내추럴
생강젤리
400g
~~$4.99~~
$2.49



참기름 들기름
300ml 각각
~~$29.99~~
~~$25.99~~
$12.99



광동제약
생강 쌍화골드
10포
~~$29.99~~
~~$19.99~~
$9.99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농축액
240g
~~$189.00~~
~~$149.00~~
$100.00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더블진액
(1개월분)
1+1
$119.00



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129.00~~
$99.00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진유철 칼럼

정리와 새로운 시작의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한 해의 마지막 날, 지난 시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장 잘 맞이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른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신경이나 신체조건 등이 좋아야 합니다.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예술적으로도 뛰어나려면 타고난 은사나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출신과 배경, 가문, 재능과 소질이 없어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의 죄,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기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2:2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롬10:11)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엄마 치마폭만 붙잡고 안 떨어지는 아이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성 있게 잘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는 아이, 누가 더 역동성과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는 좋은 상황에서도, 노예 옷을 입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죄수옷을 입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국무총리 옷을 입는 높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유연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불경기나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겠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는 믿음이라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잠간동안은 편할지 모르지만 역동성과 생명력, 하늘의 기쁨과 감격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조건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편이다 네 편이다.'를 판단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일뿐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면, 선악의 판단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유연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신년시

약진(躍進)



김 재 원 목사
세계성령사역
자협회장

숨이 차도록
달려 왔는데
새해라는 표시판이
방향을 가리킨다

주저 앉고 싶고
숨 좀 돌렸다 가려는데
세월이 기다려 주지
않고 등을 떠민다

새해 아침 태양은
무엇을 실고 오는지
힘차게 솟으며
'뛰어라' 소리 지른다

하루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없지 않는가?

놀라운 새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된다
영광의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리고
약진, 도약, 탈환, 정복, 승리의
한해가 되어야 한다

2024년의 나의 해가 되어야 한다!

신성욱 칼럼

세계 최고의 성경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위치한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을 방문했다. 오래 전, 근처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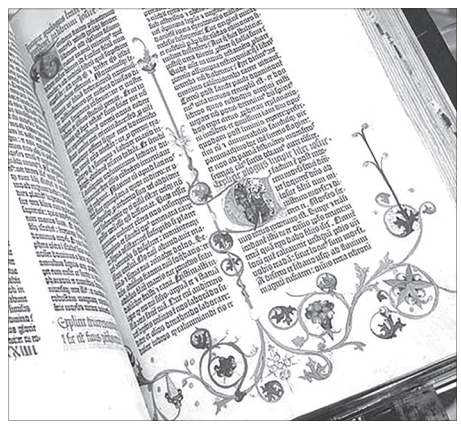
그곳은 도서관 외에도 18세기 및 19세기 유럽 미술과 17세기에서 20세기 중반 미국 미술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일본 정원', '중국 정원', 그리고 '사막 정원' 등 약 120에이커(49ha) 규모의 전문 식물 조경 정원을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 정원'에는 다다미방 같은 집이 완전 오픈해서 공개되어 있고, 대나무와 단풍이 우거진 멋진 전경을 뽐내고 있었다.

'중국 정원'에는 오색찬란한 금붕어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연못과 작은 성곽 같은 건물들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가 사진 찍기에 적격인 장소들이었다. 세 번째 방문한 '사막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선인장들이 집결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의 최고 장소가 되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선인장은 처음 구경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헌팅턴에서 내가 가장 방문하고픈 곳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가 제작해서 활자로 인쇄한 최초의 성경책이 있는 장소였다.

요한 구텐베르크(약 1397~1468년)가 제작한 성경은 서양에서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실질적인 책이다. 이것이 등장한 시기는 1455년경이다. 최초의 175부의 판본 중 오늘날 48부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중 36부는 종이에, 12부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모피지에 인쇄되었다. 헌팅턴이 소장하고 있는 성경 판본은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양피지 판본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엄청나게 큰 크기로 화려하게 제본이 되어 있는데, 개인용이 아닌 기관용으로 돈이 많은 수도원이나 교회의 소유였음을 시사한다.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성경책이라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나가 다 발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다. 구텐베르크와 같은 분의 재능과 수고로 인해 성경이 활자로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헌팅턴 도서관에 기념으로 전시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이나 내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는 성경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놓쳐선 안 된다.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해서 은혜받고 변화 받을 수 있는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전혀 활용하지 못해서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서양 최초의 활자로 인쇄한, 헌팅턴 도서관에 비치된 성경책 한 권의 값은 얼마일까? 팔지도 않겠지만, 값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최고의 성경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집에 있는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책이다. 가끔씩 야외에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땐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곤 한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수풀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그렇다. 2024년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경험될 것이다. 어느 해보다 '성경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길 소망해본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 •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주님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필수
– MDiv.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신앙 고백서 및 목회 계획서
– 추천서 (2장)
3.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
4. 서류 제출 마감일 2024년 1월 31일(도착)
5. 기타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묵 목사 / 담임목사청빙위원장 신철 장로 / 서기 서숙자 권사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서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으로 알려진 유스티누스(100-165)는 그레고 로마인이다. 유스티누스는 학문에 심취했다. 수사학(인문학), 역사, 그리고 시를 공부했고, 다양한 철학을 공부했다. 다양한 철학을 섭렵한 그는 30세쯤 되어서 기독교에 입문했고 기독교를 변증하였다.

그는 당대에 보기 드문 인문학자였다. 당시 수사학이라 칭했던 웅변술은 인문학이었다. 그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많은 글을 남겼다. 모두 기독교를 변증하는(호교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거의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 1변증서〉,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다.

유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철학자다. 그는 그리스의 우주적 로고스를 그리스도에 연계시키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자들이 입는 외투(pallium)를 걸치고 순회 설교자로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 했다.

그의 이론은 후대 기독교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테오필루스(Theophilus), 터툴리안(Tertullian), 펠릭스(Minucius Felix)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 유스티누스는 이단들과 논쟁도 주저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의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영지주의(Gnosticism)와 군주신론(Monarchianism), 사상에 대항했던 후세의 변증가 헤게시푸스(Hegesippus), 이레나이우스(Irenaeus), 히폴리투스(Hippolytus),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등으로 이어진다.

유스티누스의 고향에 관한 정보는 약간 모호하다. 먼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인근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자료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태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는 사마리아 지방에 세워진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지명을 통합한 것이 그의 출생지라고 본다.

그는 스토아주의(Stoicism), 소요학파(Peripateticism), 피타고라스학파(Pythagoreanism), 그리고 플라톤주의(Platonism)를 섭렵했지만, 그의 내적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들에 대한 공허함을 가진 유스티누스는 132년 가이사랴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유스티누스가 만난 노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다. 아마도 유스티누스가 당시에는 그 노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다 후일에 자신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며 그 만남을 정리한 듯 하다. 여하간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성을 통해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고대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말을 듣고 기독교 진리를 수용하였고 개종했다.

전승에 의하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철학자로 자처했다. 유스티누스는 과거 자신이 플라톤 철학자임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교 철학자 혹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철학자임을 주장하였다. 150년경에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기 위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호교론자(기독교 변증가)였다. 사실 그를 기독교 역사의 첫 호교론자(변증학자)로 보는 교회사가들이 많다. 아울러 그는 평신도 호교론자였다. 그는 이방인 철학자들과 논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철학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철학 학교를 통해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철학자를 전도하는 통로는 토론이었다.

유스티누스는 순회교사로 여러 지방을 다니며 토론을 즐겼다. 그는 132년~135년 사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트리폰과 종교에 관한 토론을 했다. 이 대화 내용을 155년에 책으로 엮어 펴낸 것이 〈트리폰과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the Jew)〉이다. 그가 로마에 머물며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Antonius Pius)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에 의한 박해를 목격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제1변증서〉과 〈제2 변증서〉인데 현재는 〈제1 변증서〉만 남아 있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논리에 편승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우렸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는 성품이 비교적 온순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을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려 했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의 변증서를 읽고 감동되어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65년경에 박해를 시작하자 황제의 박해를 막아 보려고 변증서를 다시 작성해서 황실에 보냈다. 물론 황제에게 이런 문서를 보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는 유스티누스의 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는 견유학파 철학자 크레센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 크리센스의 사주로 체포되었다고 전해진다. 간교한 크레센스는 유스티누스가 황제가 아닌 다른 주(Lord)를 섬긴다고 로마의 총독(혹은 집정관)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에 고발했고, 총독이 유스티누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유스티누스는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총독에 의해 6명의 동료 기독교인과 함께 체포되었다.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총독(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심문을 받으면서 유스티누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황제의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많은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 1면 기사 '인생을 리셋하시는...' 에 이어서

ANC 온누리교회 〈부르심의 사람들〉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김태형 목사의 〈부르심의 사람들〉 (벧전 2:9)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정체성을 점검하며 새해를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족으로,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구별된 자.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2024년도에 살 수 있을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2024년도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리스천의 삶은 교회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YNC 나성영락교회 〈보라 새 것이〉

2023년을 교회 창립 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로 보낸 YNC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는 〈보라 새 것이〉라는 제목의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날, 시, 연도는 모든 것을 리셋하여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말했다.

"2023년 이 해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희년을 맞아 기뻐했다."

"무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는데 주인의 돈 1,500 달러를 훔쳤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돌려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불려서 갚으면 될까요? 무디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선 남은 돈이라도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 듣고 나서 주인이 그를 용서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범죄를 저지르고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가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선행에는 보상이 있고, 거역에는 보응이 있다.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므로 더 큰 보응과 심판과 형벌로 나가지 않게 될 뿐 아니라 회개를 통해 새로워진다."

"얼마 전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자꾸 꺼졌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꺼진다. 컴퓨터에 손상된 파일이 깔리면 꺼진다고 한다. 해결법은 리셋을 하는 것이다."

"1월 1일, 오늘과 내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어제, 오늘, 내일도 변함없이 태양은 거기 있고 여전히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연과 일과 시와 분을 굳이 만들어 새로운 날을 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해, 날, 시를 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리셋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갱신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셔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날을 열어서 그 삶을 리셋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시간이 너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려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2024년 1월 1일은 2023년과 다른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달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디 한 기자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2)

천만 영화 〈서울의 봄〉, 전두광 잡자고 이태신 영웅시?

김재규·정승화·장태완, 박정희와 부귀영화 누린 정치 군인들일 뿐
군 내부 권력다툼의 왜곡과 미화
정치적 예민 시점 진보좌파 진영

◈군사 반란의 역사적 평가: 승자의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선악의 기준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일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화 〈서울의 봄〉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의 행적을 하나의 절대악으로 묘사하고 있다.

역사에 절대적 객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역사는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진다. 그리고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은 역사적 관점에서 패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비판과 폄하를 당하고 있다.

〈서울의 봄〉은 전두환 일당을 절대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두환 일당의 반대편에 선 모든 이들의 행적을 선행 혹은 의협으로 미화한다. 김재규, 정승화, 장태완 등의 인물들이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군인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전두환 일당뿐 아니라 김재규-정승화-장태완 일당 역시 마찬가지로 통수권자의 재가 없이 권력욕을 앞세워 군사를 일으킨 악의 무리였던 것이다. 다만 영화 〈서울의 봄〉은 두 무리 중 후자 쪽이 당시의 민주화 세력에게 조금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미세한 차이를 근거삼아 전자를 절대악으로, 후자를 절대선으로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다.

김재규가 민주화 투사처럼 평가되는 근거는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민주화 세력에 대해 조금 더 온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좌파 세력의 발호를 좀 더 전략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재규는 대한민국 내 좌파 세력과 그에 호응하는 노동자 집단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무조건적 강압조치들이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보다 더 위험한 국내 자생 좌파세력의 발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질적으로 김재규 역시 철두철미하게 반공주의를 지지하는 군사정권 핵심인물로,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좌파 세력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정승화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군부 핵심 요직들을 거친 인물로,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당연히 그는 박정희 생전 독재정권의 수장에게 절대적 충성심을 보이며 찬양을 아끼지 않던 인물이었다. 그런 정승화가 10·26 사태 직후 김재규를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명백히 기회주의적 행보였다. 그리고 장태완은 그런 정승화의 심복 중 심복으로, 정승화와 함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내 권력다툼에서 앞서 나가던 전두환의 반대편에 섰을 뿐이다. 그러니 10·26 사태로부터 12·12 군사 반란까지 이어진 정부와 군 내부의 파워게임은 사실상 강력한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

전두환 일당이 권력욕에 임의로 군사를 일으킨 악의 무리였다면, 김재규-정승화-장태완 일당 역시 마찬가지로 통수권자의 재가 없이 권력욕을 앞세워 군사를 일으킨 악의 무리였던 것이다. 다만 영화 〈서울의 봄〉은 두 무리 중 후자 쪽이 당시의 민주화 세력에게 조금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미세한 차이를 근거삼아 전자를 절대악으로, 후자를 절대선으로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역사적 사실을 중심 서사로 삼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는 흥행을 위해 극적 요소를 가미하고, 때문에 크든 작든 역사 왜곡을 감행한다. 다만 작중 역사왜곡 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잡힌 역사관을 보존하는 정도라면 용인될 만하지만, 그 수준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집단 혹은 종교집단에 편향적일 정도로 심각하면 세간에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서울의 봄〉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진보좌파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강도 높은 역사 왜곡을 감행한다. 이는 현재 진보좌파 인사들이 교육, 미디어, 사법 분야에서 승자로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12 · 12 군사반란 당일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화 〈서울의 봄〉.

◈군사 반란의 성경적 평가: 마귀에 의해 시작된 탐욕의 발로

성경에서 군사 반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군사 반란의 최초 기원은 에스겔에서 두로 왕으로 의인화된 그룹(cherub) 마귀의 반역이다(겔 28:11-19).

그는 하나님의 통치질서 안에서 보다 높은 권좌를 얻기 위해 자신의 힘과 세력을 동원한 일로, 영화로운 천사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원수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자주 군사 반란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군사 반란의 창시자 마귀의 속성을 반영하는 반란, 즉 순전히 개인의 영화와 권력욕에 의해 촉발됐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나 바라바의 반란 등을 지목할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어난 군사 반란, 즉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성이 반영된 악행을 선을 위해 역이용하신 사례도 있다. 여로보암,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의 반란 등이 모두 이전 군주들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 일어난 반란이었다.

다만 이 반란의 주역 대부분은 권력을 잡은 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돌아섰다.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려 노력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예후와 남유다 요아스 정도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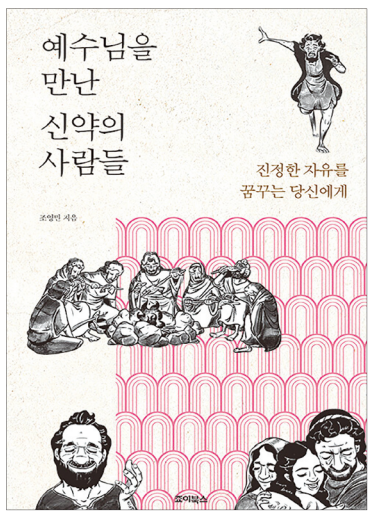
결국 군사 반란은 기본적으로 마귀가 시작한 일이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 인간의 권력욕과

➔ 18면에서 계속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당신에게]

니고데모, 바디매오, 혈루증 여인… 13명을 만나다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조영민 | 죠이북스 |

240쪽 | 15,000원

이 책은 우리와 같은, 의심하던 이, 아픈 이, 우는 이, 꿈을 잃어버린 이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건과 배경, 인물들의 심경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일할 때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순간적인 느낌으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 전부터 구원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영민 목사는 작년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구약에 나오는 열세 명의 인물을 소개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기준에 의해 선택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도 소개하면 좋은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번에도 신약에 나오는 열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열세 명의 인물을 이번에는 주제에 맞는 키워드로 소개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 왕의 신하는 믿음, 38년 된 중풍병자는 치유, 간음한 여인은 용서, 바디매오는 빛, 혈루증 여인은 회복, 야이로의 딸은 생명, 나사로는 부활, 도마는 의심,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 남겨진 제자는 증인의 삶, 베드로는 사랑, 바울은 사명이라는 주제다. 이런 주제를 키워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변화됐는지 설명한다.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바디매오를 고치시는 예수님(The Healing of the Blind of Jericho, 1650)'.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도행전 강해인 『진정한 기독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지정의(知情意)'의 변화로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을 말했다.

이런 로이드 존스의 정의처럼 조영민 목사의 설교에는 13명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知情意)의 변화를 놀랍도록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13명 모두 각자에 맞는 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키워드를 통해 대상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바디메오와 관련한 이야기 속에서, 바디메오는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 이를 알고 있기에 바디메오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는 바로 감정으로 나오는데, 그 감정은 설교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설교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다(96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감정 변화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지의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열세 명의 인물들에 대한 조영민 목사의 이야기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책을 읽어 내려간다.

혹시 서평자가 말하는 방법,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감정의 변화, 그리고 결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다면, 보다 입체적 관점으로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17면 기사에 이어서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을 지녔으며, 그나마 군사 반란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과 반란 주모자의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12·12 군사 반란은 개인의 권력욕을 추구한 하나의 악행이다. 전두환 일당이든 전두환 일당의 반대편에 선 이들이든, 어느 편도 선하다고 평할 수 없다.

김재규는 보다 큰 권력을 위해 거사를 치른 인물이고, 정승화, 장태완은 그 틈을 타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이들이다. 이들의 행위 동기에 국민을 위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조금 섞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이들의 권력투쟁 행보를 절대적인 선행으로 미화시킬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에서 승자는 후대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미화되기 마련이다. 이는 한국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의 공통적 특성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을 인권 대통령으로 극찬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얻고 전쟁을 이끌려던 동기 가운데는 개인의 영화와 영달, 그리고 야심의 충족이 인권이나 자유, 노예 해방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애초 정치권력의 속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정치란 결국 자원을 독점해서 분배하는 기술이고, 권력이란 이 자원을 독점하는 데 필요한 힘과 명분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정승화 일당이 민주화 세력에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는 점 하나를 과대포장해서, 총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작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서울의 봄〉은 정승화 일당을 참군인 집단으로 미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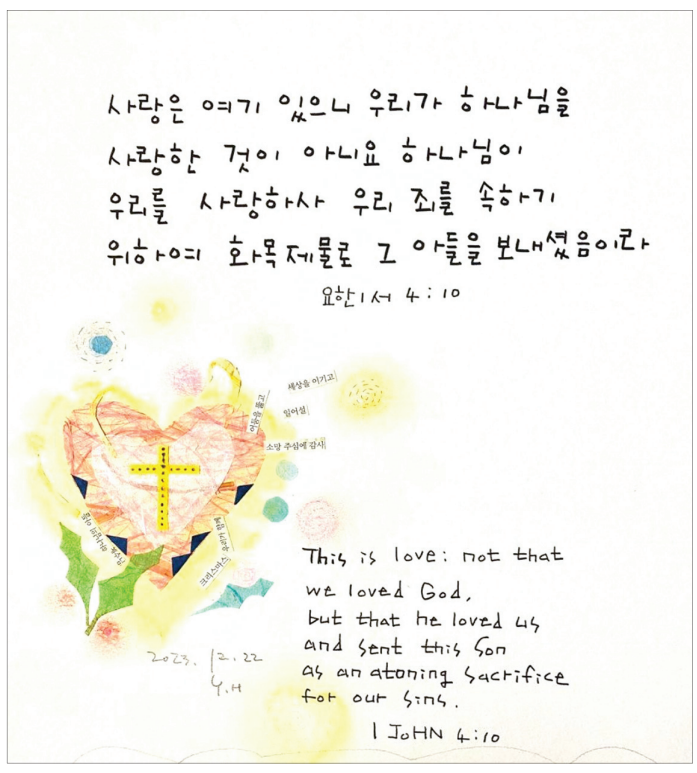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전두환 일당과 정승화 일당 모두 권력욕에 휘둘리는 영혼들일 뿐이고, 따라서 어느 편이 악하고 선하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어느 쪽이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의 터전인 이 나라에 안정을 가져다주는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더 온전하게 보장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전두환 일파 집권 후 대한민국은 거의 파탄 지경까지 갔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했고, 유신체제 말기 국내를 강타했던 불황의 여파를 벗어났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유능한 경제관료를 신임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로임에 틀림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김재규-정승화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의 상황이 전두환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았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를 신격화하는 현재의 진보좌파 세력에게는 전두환 집권기가 상당한 고통의 시기였다는 점이고, 따라서 오늘날 역사를 기록하는 승자의 입장에 선 그들이 12·12 군사 반란과 5공 군사정권 시대에 대해 지극히 편향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부동산 칼럼

실버타운, 행복하고 액티브한 인생 2막을 위한 설계



시니어 커플 ⓒMetro Realty Southern California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미주 한인 사회 은퇴 세대들의 의식 구조 및 주거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미주 이민의 실질적 1세대인 80-90 년대 이민 세대들이 자녀들의 성장으로 독립하고 이제는 그들만이 남은 실버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들의 인생이 아닌 본인들만의 인생 제 2막을 행복한 삶으로 펼쳐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근래 은퇴를 맞이한 후반부 베이비붐 세대는 이러한 곳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주거의 규모를 줄이는 즉 다운 사이징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로 인한 가용 자금의 범위를 최대한 도로 넓혀 여생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며 여행, 취미 생활 및 다양한 정보 교류로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하여 그들의 삶에 활력을 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Active Senior들은 다운 사이징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주거 지역을 선정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우선 순위라 한다.

많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주거 환경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팬데믹 이후 LA 지역 안에서 형성되는 치안 불안 ,범죄율 상승 및 노숙자 증가 등은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취약하고 염려되는 사항으로 첫째 안전한 게이트 단지를 가장 고려하고 그간의 Family life 와 job life 위주로 살았던 보통 2층 구조에 주택 패턴이 시니어가 되면 단층 구조를 거의 선호하고 셋째로는 가까이 함께 손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취미 생활 및 동호인 활동을 생동감 있게 하기를 원하는 추세이며 또한 어느 정도 한인마켓 및 한인 편의 시설이 용이한 곳을 찾게 된다.

은퇴 주거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경제적 가성비, 안전한 지역, 쾌적한 기후, 취미, 여가 활동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부 및 중서부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 은퇴자들은 연중 따뜻한 기후 및 보다 나은 다양한 여건의 은퇴지로 미국 인구 13% 이상이 살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California 은퇴 단지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인기가 있다.

오히려 남가주 거주하는 분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세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 은퇴 단지 인기가 아주 좋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팬데믹 이후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실버 타운들이 안전성 및 날씨 관계로 전국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은퇴 예정자들은 눈 여겨 볼만한 지역이며 더욱이 이 지역들은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투자 측면에서도 은퇴 후 자산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의 사회 현상적인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물 밀듯이 은퇴를 하는데 이러한 장점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은퇴 단지 공급은 이미 한정되어 있으니 부동산의 근본 원칙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일부 인기 있는모델들은 구입 경쟁이 만만치 않다. 많은사람들이 Gate community로 30만불 대 2bed Condo style에 부터 일반 지역에 볼 수 없는 70만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단층 타운하우스 및 단층 싱글 하우스로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도록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을 하며 실버세대의 공동관심사를 함께하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 시 전체가 55세 이상이 거주하며 골프장을 비롯한 모든 취미 시설이 완벽한 미국 최고의 Senior City 라구나 우드와 연중 쾌적한 날씨에 대형 단지 실비치 레져 월드, 한인타운에 가장 가까우며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가 대표적으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Huntington Beach, Mission Viejo, Irvine등에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단지들이 있다. 특히 몇몇 인기 있는 단지들은 최근 한인 은퇴자 인구가 몇 년 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증가한 상태다. 특히 라구나 우즈와 실비치 단지는 모두 바닷가와 주변 한인타운이10여 분 거리로 모든 여건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단지라 하겠다.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현명한 주거 선택이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 제이슨 노 714-655-8924 은퇴 부동산 전문
Web Site: JasonNohTeam.com



라구나 골프장

남가주 단신

▶ 보나 뮤직(이혜자 원장)과 해피 빌리지가 주최하고, KCMUSA, 미주중앙일보 등이 후원하는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음악회 〈함께하는 동요〉가 1월 27일(토) 오후 6시 LA다운타운에 있는 지퍼콘서트 홀에서 열린다.

▶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1/8일(월)~13일(토)까지 오전 5시 25분(토 6시)에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연다. 월-최순환 목사/ 화-오충성 목사/ 수- 강대홍 목사/ 목 -김성간 목사/ 금-김진영 목사/ 토 방상용 목사, Eric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세리토스선교회는 신년을 맞아'CMC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반'(13주 과정)을 1/9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까지 Zoom으로 진행한다. 한기정 장로(714-267-8003)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한 2/1~5/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8시까지 오정호(John Oh) 선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퍼스텍티브스 훈련을 Zoom을 통해 제공한다. 선교에 관심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등록비 $ 90+교재비 $ 50 + 운송비이다. 등록마감은 1월 21일(주일)이며, 문의는 한기정 장로에게 하면 된다.

▶ 감사한인교회는 1/2(화)~13(토)까지 오전 5시 15분(토 5:45)에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1/4~6(목~토) 민종기 목사, 1/8~10(월~수) 김영길 목사, 1/11~13(목~토) 박은성 목사.

은퇴 전문 부동산
라구나우즈·오렌지카운티·실비치· La Mirada 지역 전문



METRO REALTY SOUTHERN CALIFORNIA DRE# 02203825
Office: 949.664.1100
530 Technology Dr. Suite #100 Irvine, CA 92618

은퇴부동산 무료상담, 다운사이징 전문
JasonNohTeam.Com

새해 새아침

설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